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핀란드 세계대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3~24)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제 자신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년 전만해도 아주 심각한 술, 담배, 도박에 빠진 중독자였고,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회복중인 중독자입니다.

2013년 1월 5일에 저의 회복을 위해서 서울 남산에서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남산 걷기 “회복으로 가는 길”을 결단하고 선포하며 걸었습니다.

시작은 저와 아내와 어린 딸, 우리 가족 3명이 걸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가와도 걷고 혼자서도 5년 정도를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희망의 길은 없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걷다보니 주님의 길이 생겼고, 한사람 한사람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중독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중독회복상담과 중독회복상담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7년 동안 회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들은 알코올, 마약, 섹스, 쇼핑, 음식 중독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중독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도 중독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독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제 중독의 고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에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들처럼 행하라.(엡5:8)*

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고, 딸은 저에게 기쁨
이자 소망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일본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한일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관계가 안좋은데 주님안에서
만난 저희 한일커플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저희 부부처럼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31장 28절에 아내의 이야기가 써있었어서 깜짝 놀
랐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음에 너무 고맙

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중독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회복의 웃음소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저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변화지 않는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Thank you very much♡